

중앙교회 가정예배서

인도자 : 가족 대표

사도신경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552장 다같이

1.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후렴〉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앓고서 어둔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2.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3. 한번 가면 안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4.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맘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기 도 가족 중

성경봉독 다니엘 1:8-16 인도자

- 8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 9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 10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나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 11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 12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 13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 14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 15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 16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설 교 “ 뜻을 정한 자 ” 인도자

기도(합심기도) 설교자/다같이

* 설교자의 대표기도 또는 다음의 기도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 1)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고, 나라와 개인이 회복하도록
- 2)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고,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주기도문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뜻을 정한 자”

(다니엘 1:8-16)

새해가 되면 대개 결심을 하는데, 이를 ‘New Year Resolution’이라고 합니다. 이런 계기에 새로운 결심을 하나 이상 하는 것은 좋습니다. 어려운 시기, 혼란한 시기, 격동의 시기를 살면서 굳은 결심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입니다.

기원전 605년에 유다 여호야김 3년에 예루살렘은 느부갓네살에 의해 포위되고 항복했습니다. 어리석은 여호야김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보물을 약탈해서 자신들의 신전 창고에 보관했고, 예루살렘에서 왕족과 귀족 중에 탁월한 인재를 바벨론 왕궁으로 끌어갔습니다. 이 1차 포로 때에 1만 명의 귀족 자녀와 기술자들이 끌려갔습니다. 당시 다니엘 15세 정도였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포로를 끌고 간 이유는 천문학, 수학, 법학 등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쳐서 차세대 지도자로 육성하며, 바벨론 제국의 핵심 두뇌 역할을 하고, 점령지 출신의 친 바벨론 세력을 육성할 목적이었습니다. 옛 조국에 대한 생각을 버리고, 새 주인에게 충성하도록 세뇌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과정은 왕이 지정한 대로 엄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끌려간 네 젊은이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였는데 그들에게 바벨론식 새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규정 중에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 동안 기르게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의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살려만 준다면 무슨 일이든 해야 할 텐데, 기왕에 나라도 망해가는데, 하나님도 돕지 않는 것 같은데 왜 이런 결단을 내렸을까요? 다니엘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니엘은 이름까지 빼앗겼지만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지켰습니다. 그 음식물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결심할 것입니까?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자신을 거룩하게 지킬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성결의 결단은 자칫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결정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면 다르게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몇 가지 원칙을 결단했는데, 바벨론에서 제공하는 음식 거부, 우상 숭배 거부, 그리고 기도 생활 유지입니다. 이 원칙은 이후에도 상황과 처지에 상관없이 철두철미하게 지켜졌습니다. 우리는 원칙을 세우고, 자기 삶의 바운더리로 삼아야 합니다.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채식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는 무척이나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환관장은 이 일로 자기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유혹적인 상황에서 결단자는 자기 태도를 처음부터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원칙을 세우지 않으면 세상의 전략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확신이 있었던 다니엘은 10일간의 시험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은 뜻을 정한 자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 소원을 가지면 사람도 움직이십니다. 결국 환관장의 승인 아래 10일간의 시험을 거쳤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은 고기를 먹는 자들보다 더욱 윤택한 피부를 갖게 되었습니다. 10일간의 힘든 과정으로 3년간 시험에서 면제되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어찌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의 공직생활은 길고 길었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1:21). 바벨론에서 바사로 제국이 바뀔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지켜 주셨습니다. 다니엘을 바벨론에 먼저 보내신 것은 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스라엘을 보호하며, 메시아의 오심을 대망하게 하심입니다. 하지만 다니엘도 먼저 스스로 거룩한 결심을 하고 그대로 지켜야 했습니다.